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6년 4월 4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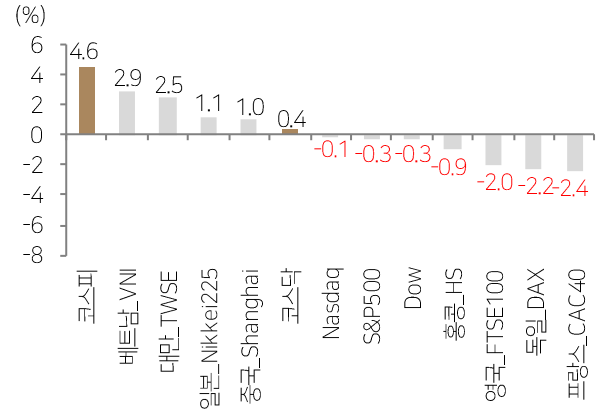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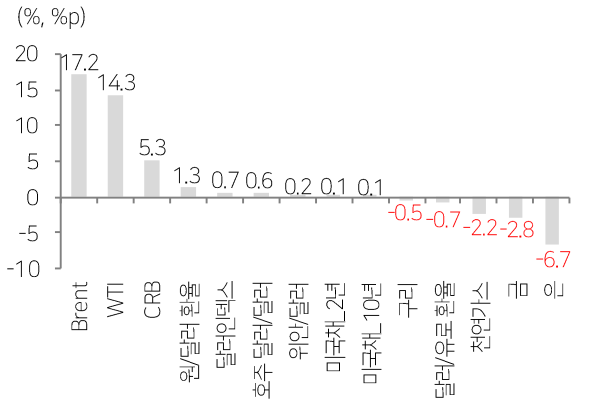
I .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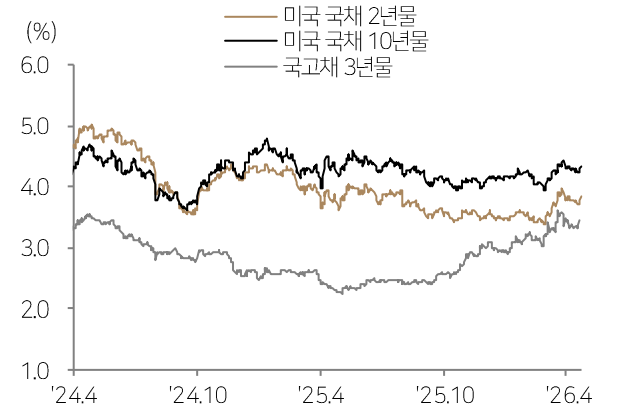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4/17일 대비 4/23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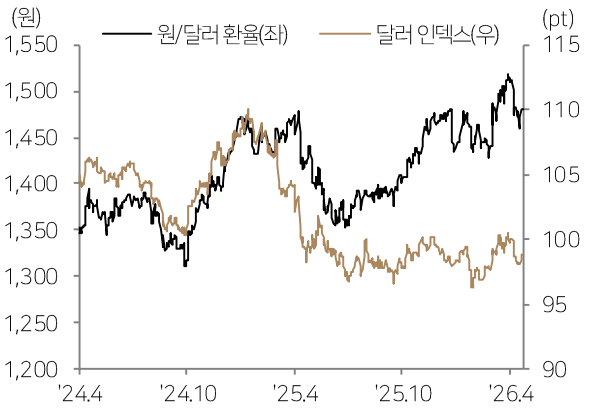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4/17일 대비 4/23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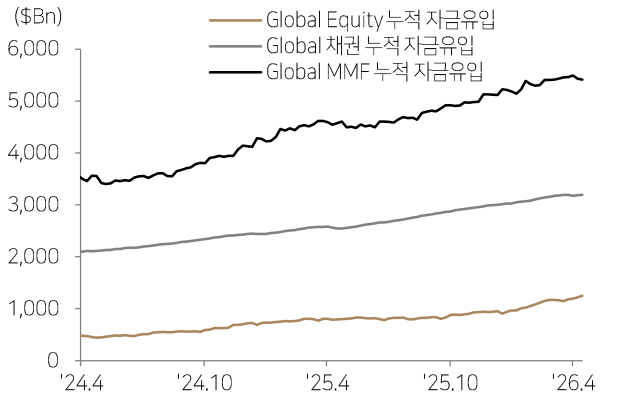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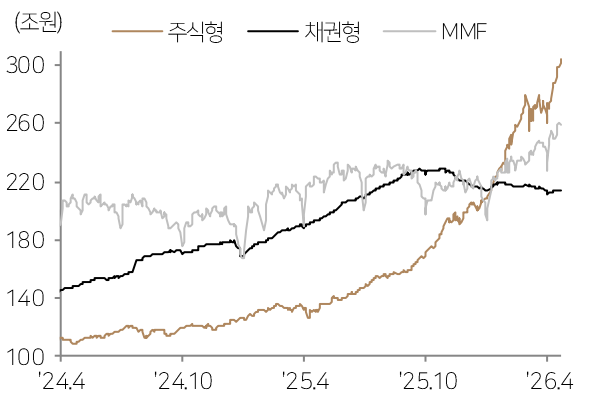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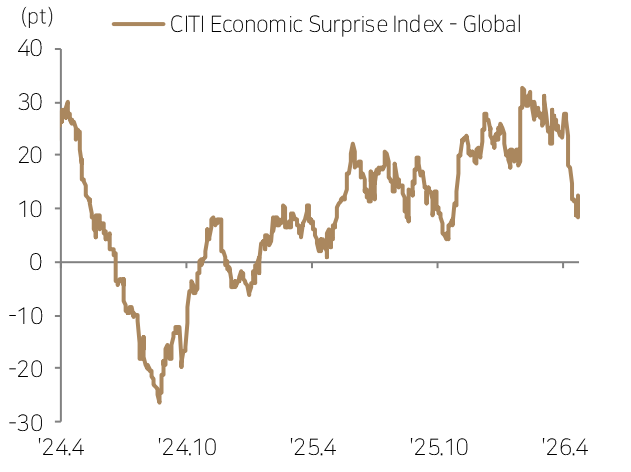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한국의 3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될 예정. 연초 광공업생산이나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이 전월 대비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된바 있음. 그러나 3월들어 유가 충격이 발생했고, 비용측면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당장 3월부터 실물지표 둔화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시차가 적은 것도 사실이나 동향은 점검해 둘 필요가 있을 듯
- 미국의 PCE 물가와 1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 기존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물가 측면에서는 헤드라인보다 코어 물가의 예상치 상회 여부가 중요해진 상황. 한편, 현재 애틀랜타 연준의 GDPnow는 1.2%까지 하향된 상황. 1분기부터 미국의 수요 부진이 가시화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 소재로 작용할 여지도 있음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4-28	미국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Index	89.3	91.8
2026-04-29	미국	3월(잠정) 내구재 수주	%mom	0.5	-1.3
2026-04-30	한국	3월 광공업생산	%yoy	-	-2.2
2026-04-30	유로존	1분기(속보) GDP SA	%yoy	0.9	1.2
2026-04-30	유로존	4월(잠정) 소비자물가지수	%yoy	2.9	2.6
2026-04-30	유로존	3월 실업률	%	6.2	6.2
2026-04-30	미국	3월 PCE 물가지수	%yoy	3.5	2.8
2026-04-30	미국	1분기(속보) GDP 연간화	%qoq	2.0	0.5
2026-04-30	미국	3월 선행지수	Index	-	-
2026-05-01	일본	4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yoy	1.6	1.4
2026-05-01	미국	4월(최종) S&P 글로벌 미국 제조업 PMI	Index	-	54.0
2026-05-01	미국	4월 ISM 제조업지수	Index	53.3	52.7
2026-05-01	한국	4월 수출/입	%yoy	47.3/12.9	48.3/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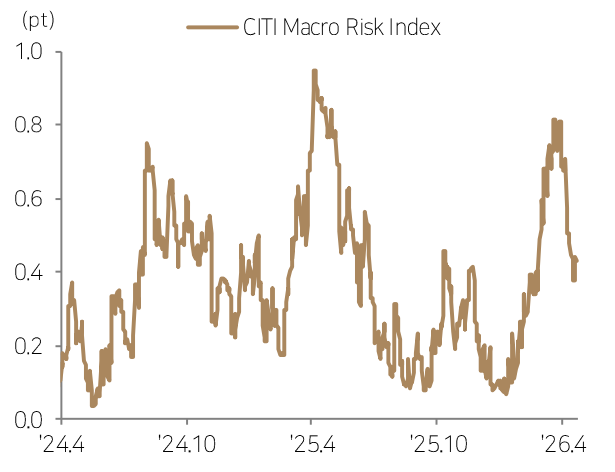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4/27 ~28	일본	상	BOJ 금융정책위원회	▪ 3월 회의에서 BOJ는 금리 동결을 결정. 중동 리스크에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상황에 따른 정책 조정을 제시. 급격한 긴축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률과 물가 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 3월 춘투 1차 응답 결과, 평균 임금 인상률이 5.26%로 가파른 인상이 나타남. 다만 현재까지는 중동 사태의 향방이나 유가 상승 영향이 불분명한 상황
4/28 ~29	미국	상	FOMC	▪ 3월 회의 및 최근 동향 상 연준은 동결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경계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미 3월 회의에서도 유가이외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는 뉘앙스를 보인만큼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더디긴 하나 케빈 워시의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 선임이 늦어진다면 인선 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파월의 유임이 이루어질 수 있음
4/29 ~30	유럽	상	ECB 통화정책회의	▪ 3월 회의에서 예금금리(2.00%),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모두 동결. 유럽은 최근 신용창출 둔화 및 성장 모멘텀 둔화 추세에 있지만 에너지 가격 동향에 민감한 경향. 라가르드 총재도 에너지 관련 인플레이션 우려에 충격이 단기적일 경우 무시하겠지만, 계속된다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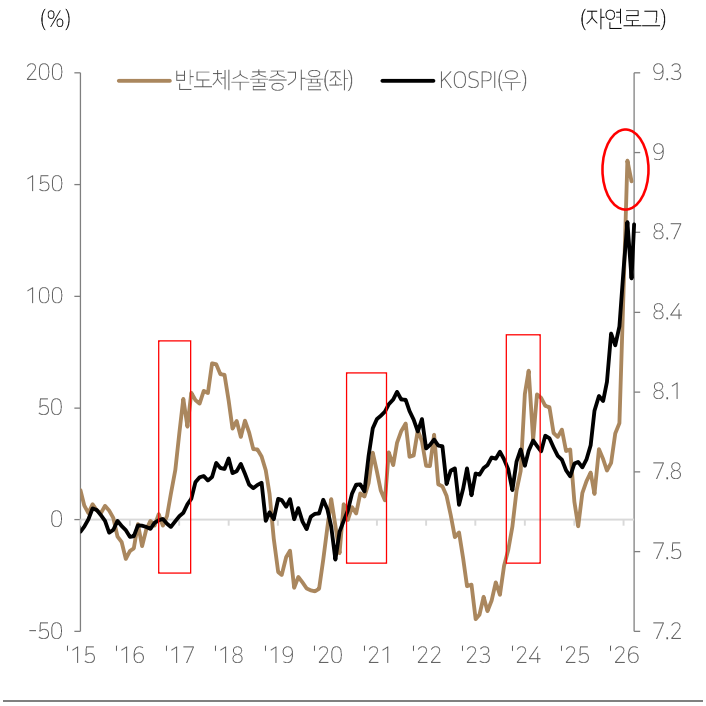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4/17~04/23) 증시 동향	▪ KOSPI(4.6%), KOSDAQ(0.4%) 상승. KOSPI는 IT하드웨어(+14.5%), IT가전(+13.8%), 조선(+12.6%)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디스플레이(-6.1%), 미디어,교육(-4.0%) 업종 하락. 주 초반 KOSPI는 실적 시즌 기대감 유입되며 상승. 주중 휴전 협상 불발·미국의 일방적 휴전 연장 등의 소식 전해지며 불확실성 확대됐으나 리스크에 대한 내성으로 영향은 제한적.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매수 유입, KOSPI는 사상 첫 6,500선 돌파 ▪ DOW(-0.3%), S&P500(-0.3%), NASDAQ(-0.1%) 하락. 주 초반 2차 협상 앞두고 경계심리 유입되었으나, 개별 기업 호재에 힘입어 기술주 중심의 상승. S&P500과 나스닥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 다만 군사적 긴장감 지속에 변동성 확대, 위험 회피 심리 부각되며 약보합 마감
차주 (04/27~04/30) 증시 전망	▪ 중동 상황이 쉽게 결론 나지 않고 있음. 증시는 기타 자산에 비해 선제적으로 강한 회복을 보이며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전쟁 충격을 만회. 단기 가파른 반등에 대한 기술적 부담도 형성될 여지. 인플레이션과 금리 부담이 사후적으로 반영될 것에 대한 경계심 있지만, 해당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2분기 말 이후로 추정. 강화되는 이익에 대한 기대와 낮은 밸류에이션은 증시의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소재로 보이나 여전히 유가나 금리 흐름은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음에 유의 ▪ 시장의 성격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국내 증시 펀더멘털의 근간인 수출 증가율 측면에서 고점 부근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높고, 4월 이후 실적 추정치의 상승 속도도 둔화될 여지가 있음. 속도 둔화 국면에서도 증시의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지만, 실적을 견인한 주도주에 대한 집중도는 5월로 가며 완화될 개연성도 생각해 볼 필요. 반도체, IT H/W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더라도 반도체와의 상관계수가 낮고, 실적 모멘텀 측면의 기대감이 있는 조선, 2차전지 등도 함께 고려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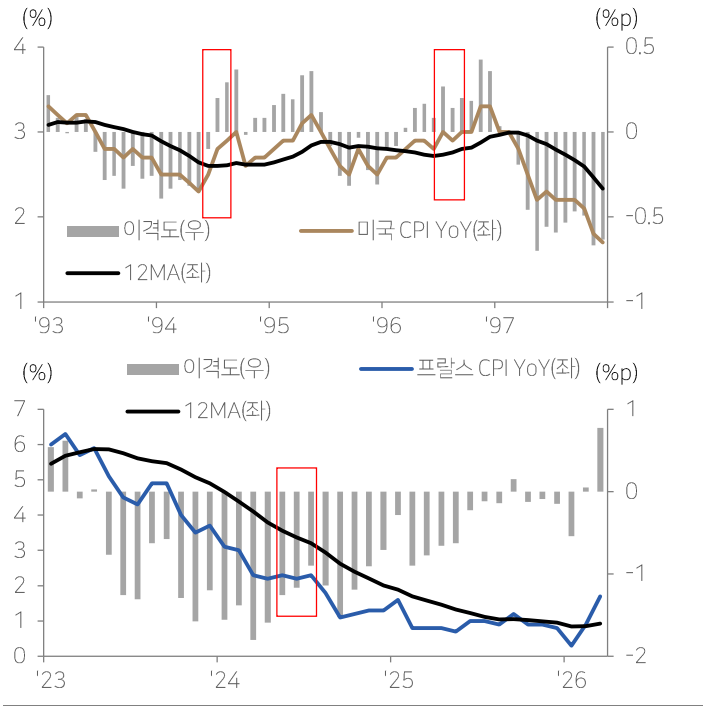
4월에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지 여부도 점검할 필요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4월도 여전히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음. 20일까지 잠정 수출은 504억$, 전년 비 +49.4% 증가로 집계. 183억$로 절대적인 비중(36.3%)을 차지한 반도체의 경우 전년 비 +182.5% 급증. 2, 3월 증가율도 상회
- 섹터 담당자의 의견도 그렇고 반도체의 업황 호조 지속에 대해 이견을 달 근거를 찾기 어려움. 풍부한 수요 배경 하에 공급 측 제약도 상존해 수출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은 하반기에도 연장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수출 증가율이 정점 부근에 진입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듯. 그림에 박스로 표시해 둔 부분들은 가파른 수출 증가율이 확인되다가 증가율 고점 영역에 진입하는 페이스 체인지 구간들
- 이 구간들에서 여전히 높은 수출 증가율과 기업이익 호조가 이어지고, KOSPI도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남. 그러나 지수차원의 상승 탄력은 기존에 비해 다소 느려지는 흐름도 같이 확인되고 있음. 이는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경우 업종 확산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진 구간임을 시사

글로벌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와 물가(94년 미국 월드컵, 96년 미국 올림픽, 24년 프랑스 올림픽)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전쟁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유입됨에도 아직까지 찝찝함이 남아 있는 부분은 사후적인 물가 압력에 대한 부분. 과거 22년 전쟁 당시에도 강한 물가 압력이 연준의 긴축적인 정책기조를 강화시켰던 기억이 있음
- 미국의 내수 상황(고용, 임금 등)을 보면 수요 측 인플레이션 요인이 발생하면서 당시와 같은 물가 상승 압력 심화를 이끌어 낼 상황은 아닐 수 있음. 시장이 아직까지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유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6~7월 미국 월드컵이라는 글로벌 규모의 이벤트가 있다는 점. 정성적인 관점에서도 이 같은 대형 이벤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제공할 수 있어 보이며, 실제 미국의 과거 월드컵 및 올림픽 개최 사례, 최근 프랑스의 올림픽 사례에서도 이벤트 기간 동안 인플레 압력이 발생했음은 확인 가능. 일시적인 압력일 수 있으나 유가 부담과 결합될 경우 해당 시점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